영화 '소울메이트' 전소니 "이제 새로운 여성 서사가 필요하잖아요"

두 여성이 주인공 "이런 영화 기다렸다"
김다미와 호흡 "큰 자극 받아 행복했다"
"내 연기 만족 못해 계속 연기하게 된다"

영화 '소울메이트'는 흔히 볼 수 없는 작품이다. 남성 캐릭터가 극을 이끌어가는 영화가 유독 많은 한국영화계에서 두 명의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데다가 이들의 결단과 내면이 전면에 드러나는 이른바 '여성 서사'는 1년에 한 편을 만나기 힘들었다. 이때 나온 나온 '소울메이트'는 긴 인연을 이어가는 두 친구 '미소'와 '하은'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만남과 이별로 러닝타임을 꽉 채웠다는 점에서 시도 자체로 귀하다.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건 배우 전소니(32)와 김다미(28) 두 젊은 배우다. 상반된 매력을 가진 이들은 관객 눈에 익숙한 남성 배우 한 명 나오지 않는 이 영화를 함께 책임지며 그들만으로도 충분한 '소울메이트'를 만들어냈다. 오는 15일 개봉을 앞두고 전소니를 만났다. 그는 "관객이 이런 영화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직도 여성 서사 영화라고 하면 '고양이를 부탁해'(2001)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런 영화가 가뭄에 콩나듯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젠 더 많은 보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소니가 연기한 하은과 김다미가 맡은 미소는 제주도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자매나 다름 없는 관계를 맺으며 성장한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진우'(변우석)가 들어오고, 이어 하은과 미소 사이에 미묘한 감정 변화가 생기면서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연은 쉽게 끊어졌다가도 간절하게 이어붙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소울메이트'는 단순히 여성이 주인공이라서가 아니라 이들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하은과 미소의 삶을 내보인다는 점에서 분명 '여성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촬영하면서 좋은 여성 서사를 만들어보자고 그 마음을 서로 확인했어요. 하은과 미소 사이를 흐르는 그 시간들이라든지, 둘의 사춘기랄지, 또는 관계의 흔들림, 그리고 이들이 행복해하고 아파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관객도 이런 이야기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영화의 일부분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소울메이트'에는 원작이 있다. 중국 칭산 작가가 2000년에 내놓은 소설 '칠월과 안생'이 있고, 정궈샹 감독이 이 작품을 바탕으로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2016)를 만들었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2만5000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이 보는 데 그쳤지만, 많은 팬을 만들어낼 정도로 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 전소니 역시 원작 소설과 앞서 나온 영화를 모두 봤다고 했고, 그 역시 팬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작에 기대기보다는 각색돼 나온 '소울메이트' 각본에 충실하게 연기했다고 했다.

"어차피 각색은 감독님의 몫이고, 배우는 대본에 쓰인대로 연기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원작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연기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작품엔 원작과 다른 결정적인 대목이 하나있다. 바로 하은과 진우의 결혼식이다. 원작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진우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소 수동적인 형태로 하은이 자기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되지만, 이번 영화에선 하은이 결혼식 직전 사라져 자기 삶을 살기로 능동적으로 결정한다. 하은의 결심을 진우의 선택에 맡기지 않겠다는 게 민용근 감독의 생각이었고, 전소니 역시 이 결정에 동의했다. 전소니는 "요즘 관객은 하은의 이 선택에 더 공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영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두 주연 배우의 연기 호흡이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의 두 배우 저우동위와 마

쓰춘은 조화로운 연기 합을 보여주며 금마장 시상식에서 최초로 공동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전소니와 김다미 역시 저우동위·마쓰춘 못지 않은 조화로운 연기를 보여주며 관객을 사로잡는다. 전소니는 김다미와 함께한 연기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고, 김다미에게 큰 자극을 받았다고 했다. "다미는 직관적이에요. 예상치 못한 걸 보여주죠. 그럴 때면 전 그걸 되갚아주고 싶었어요. 다미와 제가 경쟁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저도 더 좋은 연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게 있으면 저희가 함께 감독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했죠. 참 큰 의지가 됐어요."

다만 전소니는 아직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싫지 않다고 했다. "제 연기에 만족하지 못해야 계속 연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박신혜, 로코로 복귀…박형식과 '닥터슬럼프'

배우 박신혜(33)가 결혼·출산 후 복귀한다.

JTBC '닥터슬럼프'는 인생 상승 곡선만 달리다 브레이크 걸린 '여정우'(박형식)·'남하늘'(박신혜)의 로맨틱 코미디다. 라이벌인 두 사람은 가장 찬란한 시절을 지나 인생 최대 암흑기에 재회한다. '그 남자의 기억법'(2020) 오현종 PD와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백선우 작가가 만든다.

박신혜는 지난해 1월 배우 최태준(32)과 결혼했다. 4개월 만인 그해 5월 아들을 낳았다. 안방극장 복귀는 '시지프스'(2021) 이후 2년여 만이다. 특히 박형식과 '상속자들'(2013) 이후 10년 만에 만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늘은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마취과 의사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불렸고, 명석한 두뇌와 지독한 노력으로 공부에 미쳐 살았다. 어느 날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다짐할 예정이다.

박신혜는 "누구나 살면서 슬럼프를 만나는 것 같다. 그 순간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하늘이 마주한 상황에 동질감이 느껴져서 더욱 마음이 갔다. 삶에 지친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우는 스타 성형외과 의사에서 인생 최악의 슬럼프에 빠지는 인물이다. 학창 시절 전교 일등을 도맡고, 국내 최고 의대를 거쳐 의사가 되기까지 탄탄대로를 걷는다. 의문의 의료 사

고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다. "오랜만의 로맨틱 코미디라서 떨리고 설렌다"며 "박신혜와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게 돼 반갑고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윤박은 성형외과 의사 '빈대영'을 맡는다. 잘나가는 대학 동기 정우에게 나 홀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 그를 이해한다. 허세가 넘치고 자존심도 세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다. 공성하는 하늘의 절친이자 산부인과 마취과 의사 '이홍란'으로 분한다. 하늘과 대학 시절부터 전공의 시절까지 함께한 동기다. 다른 듯 닮은 점이 많은 대영과 묘하게 엮인다.

제이홉, 빌보드 '핫100' 자체 최고…'온 더 스트리트' 60위

솔로 자격으로 '핫 100' 통산 4번째 진입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29·정호석)이 새 솔로 싱글 '온 더 스트리트(on the street)'(with J. Cole)'로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100에 이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도 자체 최고 성적을 냈다.

13일(현지시간) 빌보드 트위터에 따르면, 제이홉이 지난 3일 발표한 싱글 '온 더 스트리트'가 18일 자 '핫 100'에 60위로 데뷔했다.

'온 더 스트리트'는 로파이 힙합(lo-fi hiphop) 장르다. 듣기 편한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가 조화를 이룬다. 제이홉이 작사, 작곡에 참여해 노래에 희망의 메시지와 온기를 불어넣었다. 미국 래퍼 겸 프로듀서 제이콜이 협업했다.

앞서 영국 오피셜 최신(10~16일) 싱글 톱100 차트에선 37위를 기록하며 해당 차트에서도 자체 최고 성적을 냈다.

특히 제이홉이 빌보드 '핫100'에 솔로로 진입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2019년 라틴계 미국 가수 베키 지와 함께 한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로 81위, 지난해 7월 발매한 첫 공식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 더블 타이틀곡이자 선공개곡인 '모어(MORE)'로 82위, '방화'(Arson)'로 96위를 차지했다. 제이홉은 이미 방탄소년단 멤버로 '핫100'에 6곡을 1위로 올렸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 포함 제이홉은 '핫100'에 네 번째로 가장 많은 곡을 올린 K팝 가수가 됐다. 방탄소년단이 '핫100'에 26곡을 올리며 K팝 팀 중 가장 많은 노래를 해당 차트에 진입시켰다. 두 번째는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로 총 9곡을 올렸다. '강남스타일'의 싸이가 5곡으로 뒤를 이었다.

박호산·유태웅·이자람·이호재, 예술의전당 연극 '오셀로' 출연

예술의전당 토월정통연극 시리즈 부활…5월 개막

예술의전당이 전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연극 '오셀로'를 5월12일부터 6월4일까지 CJ 토월극장에서 공연한다.

'아가멤논', '템페스트', '부활' 등 인간 내면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담긴 연극을 선보여 온 예술의전당 토월정통연극 시리즈다.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토월정통연극 시리즈'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작품"이라고 밝혔다.

'오셀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심리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오셀로와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심리는 유기적으로 짜여 돌아가며 인간관계의 허약한 단면을 추적해간다. 광기 어린 추악한 욕망과 질투, 이로 인해 추락하는 고결한 사랑을 강렬하게 그려낸다.

주인공 '오셀로' 역에는 동갑내기 두 배우 박호산과 유태웅이 나란히 캐스팅됐다. 질투와 불안 속에 추락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박호산은 18년 만에 예술의전당 토월정통연극 무대에 선다. 지난 2005년 예술의전당 연극 '아가멤논'에서 치열한 오디션 심사를 거쳐 주인공 아가멤논 역으로 발탁된 바 있다.(당시 34세로 박정환으로 활동)

오셀로의 기수장으로 광기 어린 욕망에 사로잡혀 모두를 불안 속으로 몰고 가는 질투의 화신 '이아고' 역은 손상규가 맡는다.

트와이스, 오는 4월 서울서 월드투어 포문

트와이스 새 월드투어의 첫 개최지인 서울 공연 티켓 예매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트와이스는 오는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2회 공연을 갖고 '트와이스 다섯 번째 월드투어 '레디 투 비(TWICE 5TH WORLD TOUR 'READY TO BE')'의 포문을 화려하게 연다.

서울 공연의 마지막 날인 4월 16일에는 오프라인 공연과 함께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유료 생중계를 동시 진행할 예정으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콘서트 티켓은 예스24(YES24)에서 예매 가능하며, 21일 오후 8시 팬클럽 원스(ONCE) 3기 캔디(CANDY) 회원과 22일 오후 8시 젤리(JELLY)회원을 대상으로 선예매를 진행하고 24일 오후 8시에는 일반 예매가 열린다.

박서준·이지은 '드림' 다음달 26일 만나요

배우 박서준과 이지은(아이유)이 드림팀을 결성한다.

영화 '드림'은 개념없는 전직 축구선수 '홍대'(박서준)와 열정없는 PD '소민'(이지은)이 오합지졸 국대 선수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극한직업'(2019·누적관객 1626만명) 이병헌 감독의 신작이다.

론칭 포스터와 드림팀 명단 영상을 공개했다. 포스터 속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축구공을 중심으로 발을 맞대고 있다. 드림팀 명단 영상에선 선수 '환동'(김종수)부터 '효봉'(고창석) '범수'(정승길) '인선'(이현우) '문수'(양현민), '영진'(홍완표), 사무국장 '인국'(허준석)까지 시선을 끌었다.

다음 달 26일 개봉.